연기금 국내주식 축소 추세 여전
네카오 등 성장·금융株엔 러브콜

연기금 올해 국내주식 1130억 순매도
코스피 순매수 1위 종목 '카카오'
KB·신한·하나 등 금융주 집중 매집

국내 증시 '큰 손'인 연기금이 새해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성장주와 금융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 비중 감소 추세는 여전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기관투자자는 국내 주식(코스피·코스닥) 1조402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가운데 연기금은 113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연기금으로 분류하는 수급 주체는 연금, 기금, 공제회와 함께 국가, 지자체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기간 연기금 코스피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카카오다. 103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네이버(349억원)는 순매수 7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두 종목 모두 지난해 한 해 동안 50% 넘게 급락했으나, 올해 들어 각각 15.25%, 10.42%씩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긴축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나스닥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커진 모양새다.

〈연기금 코스피 순매수 상위 10종목〉

종목명	순매수 금액
카카오	1039억
롯데케미칼	504억
KB금융	441억
SK하이닉스	409억
삼성전기	394억
포스코케미칼	354억
네이버	349억
신한지주	348억
하나금융지주	334억
LG전자	297억

기간 : 1월 2일~20일. 단위 : 원 /한국거래소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추가 하락이 없다면 오는 3월 양회 이전까지는 중국 플랫폼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가 주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한 국내 플랫폼 업체의 직·간접적인 수혜는 전무하나 평균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금융(441억원), 신한지주(348억원), 하나금융지주(334억원) 등 금융주도 순매수했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한지주는 자본비율을 12%대로 유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국내 7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요구하는 공개주주서한을 보내며 '은행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은행주 중심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크게 형성됐다"며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가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과 자본시장의 요구가 맞물려 은행주 주가는 연초 이후 10~28%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얼어붙은 회사채… 전년대비 수요예측 11조↓

금리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 악재 영향

지난해 금리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가 전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공모회사채 수요예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규모는 322건, 28조4000억원이 진행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176건(35.3%), 액수는 11조1000억원(28.0%) 감소했다. 경쟁률은 230.5%로 전년(398.8%)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금투협은 "한·미 금리격차 축소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이 연 7회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발행사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기관의 평가손실 우려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발행수요와 기관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 등 연이은 악재의 여파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시기를 이연하거나 은행대출,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 경로를 선회한 것도 수요예측 규모 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12조2000억원, 2분기 8조2000억원, 3분기 5조6000억원, 4분기 2조4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11월 말부터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및 정부의 시장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 우량채를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재개되고 높은 참여율을 달성했다.

〈연도별 회사채 수요예측 추이〉

구분	21년	22년
수요예측 종목수	498	322
수요예측 금액	39.4	28.4
수요예측 참여금액	157.3	65.4
수요예측 경쟁률	398.8%	230.5%

단위 : 조원 /금융투자협회

금투협은 지난해 수요예측 특징으로 양극화 심화와 미매각 증가를 꼽았다.

등급별 비중은 AA등급 이상 우량채의 경우 70.8%에서 77.6%로 증가해 주축을 이룬 반면, A등급과 BBB등급 모두 감소했다.

또 금리인상기 평가손실을 우려한 기관 참여가 저조해 52건, 2조6000억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 미매각 금액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매각율은 6.7%로 전년(1.1%) 대비 5.6%p 상승했다.

높은 신용도의 공사채도 고금리 발행을 이어가자 지난해 회사채의 결정금리가 상승했고, 단기물 선호도가 높아지며 평균 만기도 3.7년에 그쳤다.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36%를 증권사가 차지했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다. 이어 자산운용사(31%), 연기금(15%), 보험사(10%), 은행(8%) 등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회복장 대비하세요"

예측 어려운 횡보구간서 강점

신한자산운용의 대표적인 국내주식형 펀드 '신한얼리버드펀드'가 최근 1개월 수익 6.75%로 코스피를 3.38%포인트(p) 앞서고 있다.

25일 신한자산운용은 미국 물가상승 둔화와 통화긴축 완화가 불러올 회복장세에 주목할 투자상품으로 '신한얼리버드펀드'를 추천했다.

신한얼리버드펀드는 2005년 출시돼 17년 이상 운용되고 있는 신한자산운용의 대표적인 국내주식형 펀드로 선제적 리서치를 통해 주도주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2005년 설정 이후 310.49%의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하며 동일기간 코스피지수의 상승률(95.99%)을 3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최근 1개월 수익은 6.75%로 코스피를 3.38%p 앞섰고, 3개월 수익률에서도 13.07%를 기록해 장·단기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 펀드는 최근처럼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고, 명확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횡보구간에서 강점을 보인다. 선제적인 기업분석을 통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차기주도주를 선점해 투자하고 적정가치에서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박미경 기자

금융위,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금투업계, 토큰 新투자처 주목… 발행·유통 속도

신한 하반기 STO 플랫폼 서비스 예정
KB SK C&C 디지털자산 협업
키움 한국정보인증 등 사업협력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공식 허용하면서 증권형 토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 증권사들은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이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토큰 발행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안건을 의결했다.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은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나서고 있으며 나머지 증권사들도 여기에 가세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7월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전담 조직인 블록체인부를 출범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왔는데 올 하반기에 STO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2월 합작 법인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STO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SK C&C와 디지털자산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TO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능을 개발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25일 한국정보인증, 페어스퀘어랩 등과 토큰 증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토큰 증권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본부장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정보인증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토큰 증권 분야로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자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SK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도 STO 및 조각투자 업체에 투자하거나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STO가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STO 산업이 본격화하려면 무엇보다 증권형 토큰의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이 추가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는 장외거래와 STO를 통해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STO의 장점으로 꼽히는 '거래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할 것"이라며 "STO 산업의 업사이드는 비유동성 자산 토큰화로 새로 생겨나는 시장 규모가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청약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며,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